

〈제 658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신세계

◆ 식품관 새롭게 변신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지난 16일 동종 업계와의 차별화를 위해 식품관을 그로서리 프리미엄 매장으로 재단장했다.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한 홈쿡 식재료에 대한 고객 니즈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으로 검증된 수입 브랜드를 4배 가량 확충했다. 이에 프리미엄 오일·비니거

브랜드인 주세페주스티, 레오나르디, 데체코, 만토바와 소스·향신료 브랜드인 스톡스, 오오가닉, 샤프란, 말돈 등 수입 브랜드 위주로 풀 라인업했으며 파스타는 원조 이탈리아 브랜드인 롬모, 데체코가 신규 입점했다.

이밖에도 국산과 일상용품은 비효율적인 중복 상품들이 많아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 구색 상품 위주로 구성했으며, 기검증된 프리미엄 상품군을 확대 개선했다.

광주은행

◆ 창립 53주년 기념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9일 창립 53주년을 맞이해 본점에서 송종욱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감사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이번 기념식은 본점 출입 시 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체온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행사장 소독 등 철저한 방역 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광주은행의 53년을 위해 성원을 보내준 감사고객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우수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광주은행의 지난 53년 역사를 돌아보며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됐다.

보해양조

◆ 보해-이디야 '복분자뱅쇼' 출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보해복분자 출시 17주년을 맞아 복분자 뱅쇼를 이디야 커피에서 선보인다. ‘곰표 맥주’ 등 서로 다른 브랜드 사이의 이색 협업이 MZ세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보해와 이디야의 만남에도 큰 기대가 쏠리고 있다.

복분자 뱅쇼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이디야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디야 커피는 지난 2001년 설립한 이후 국내 최다 매장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대표 커피 체인점으로 성장했다. 다양한 메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랑받는 이디야는 뱅쇼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별한 뱅쇼를 만들고자 보해복분자를 선택했다.

프랑스어로 ‘따뜻한 와인’이란 뜻을 지닌 뱅쇼는 최근 2~3년 사이 주요 커피 체인점에서 주요 메뉴로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

◆ ‘국제 IoT·가전·로봇 박람회’ 참가



삼성전자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국제 IoT·가전·로봇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삼성전자는 ‘당신을 위한 환상의 팀 워크’를 주제로, ‘비스포크’ 가전과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연결성이 한층 강화된 스마트 홈을 선보였다. 또한 쿠킹·의류케어·

펫케어 등 스마트싱스 주요 서비스를 테마로 전시존을 구성해, 각 서비스가 추구하는 소비자 맞춤형 경험을 보여줬다.

오비맥주 광주공장

◆ 전국 물류매장에 전기 지게차 도입



오비맥주는 전국 21개 물류 직매장의 지게차를 2022년말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연간 1176t의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작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디젤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순차적으로 교체하

고 있으며, 11월 현재 30대의 전기 지게차를 도입, 연말까지 35대에 이어 2022년까지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지게차는 1대당 연간 약 14t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번 교체를 통해 연간 약 1176t의 탄소 감축효과가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온라인 수출상담회 ‘성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권재)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2021년 광주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총 181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중 12개사는 샘플 거래가 성사됐다.

이권재 본부장은 “온라인 상담회의 한계 극복을 위해 올해는 상담을 2회 개최해 좋은 성과들이 나오게 됐다”면서 “곧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는 등 전 세계가 워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출상담회 등 국내외 비즈니스 현장에서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을 이어가 광주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 베트남 ‘우호훈장’ 수훈



호반그룹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진행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주석 우호훈장 수여식’에서 응우옌 부 쩡 주한베트남대사로부터 베트남과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단체에 베트남 국가주석이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인 ‘우호훈장’을 수훈했다.

김상열 이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광주·전남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재임하면서 베트남 계획투자청과 광주지역 협력, 광주광역시 북구와 베트남 꽝빙성 바돈시 MOU 체결,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베트남 꽝남성 호이안시 MOU 체결, 주한베트남대사관과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 행사 공동 주최 등 양국 우호증진을 위한 많은 지원을 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II. 광주경충 소식

〈제1538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한비아(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주제: 당신에게 보태는 1그램의 용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1월19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강연장에서 한비아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을 초청 <당신에게 보태는 1그램의 용기>란 주제로 제1538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세계는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 집이다.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들도 진정한 한 공동체 안에 있다. 우리는 한국인이자 세계시민이다. 저는 오지탐험가에서 NGO의 긴급구호 팀장으로, 이제는 학생으로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의 멘토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세계지도 한 장이 꿈을 키우게 했다. 꿈을 이루고자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 온 돈을 전부 가지고 세계로 떠나 6년간 세계 일주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여행 중에 살리고 싶은 아이들, 그리고 가진 재능과 기술을 사람 살리는데 쓰고 싶다는 욕구, 살려야 하는 아이들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기쁨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나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 해야 할 일을 할 자신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을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걸 가로막는 건 불안과 두려움이다. 나는 세상의 많은 어려운 이에게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은 친절과 위로, 내가 두 손으로 정성껏 전해주고 싶었던 사랑, 그리고 인생의 고비에서 많은 사람들과 주고 받았던 작은 용기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는가? 가슴 뛰는 일을 해야만 생기는 건디는 힘! 버티는 힘! 끝까지 해내는 힘이 생긴다.

당신에게 보태는 1그램의 용기. 결국 용기는 그 일이 얼마만큼 하고 싶은가에 달려 있다. 꼭 하고 싶다면 눈 딱 감고 그 자리에서 딱 한 발짝만 앞으로 나가보세요. 내 이야기에서 1그램의 용기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II. 광주경충 소식

<중장년센터 제36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18일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36회 생애 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29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제7차 운영협의회>



본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제7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운영협의회는 노사민정 개별주체간의 협조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여 노사 협력, 일자리 창출지원, 파트너십 구축 등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협의체로,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20년도 노사민정 사업 추진실적 인터뷰 관련사항 및 워크숍 개최 관련 논의 시간을 가졌다.

사무국 일지(11.15 ~ 11.19)

11.16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심사 ●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11.19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38회 금요조찬포럼 ● 21년 청년주간 행사
11.18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센터 제36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노사민정운영협의회 제7차 회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네트워킹 모듬활동 		

1. 노사 동향

■ 정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신중 유아휴직 사용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정부는 11. 16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

※ 개정령은 2021. 11. 19부터 시행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 19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 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담

[참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 공제액이 있는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육아휴직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규정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양 노총은 대선 정치방침 마련에 집중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지역별 현안 의견 수렴을 위해 11. 15 경기중부지역지부를 시작으로 지역 현장순회를 시작

- 한국노총은 지난 9월「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4대 목표와 23개 과제를 담은 대선 요구안을 확정된 가운데 금번 현장순회에서 기존 대선요구안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 요구사항을 마련한다는 계획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민주노총은 11.13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진보정당과 노동권 보장 등 대선 공동 선언 발표
-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공동 투쟁 과제로 ▲노동 생활권 보장, ▲주4일제 도입,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을 제시

2. 법제 동향

■ 김주영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0)

- (발의 이유) 현행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는 공사종류, 공정률 등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
 -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가 보고하는 공사현황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공사의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현황이어서 실제 공사현장의 어느 단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주요 내용)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규정

■ 송옥주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1)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해당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현행법상 상급자에는 속하나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능
 -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인 배우자와 혈족 및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갑질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만 처벌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인 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 불가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주요 내용)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

■ 송옥주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1)

- (발의 이유) 현행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그 내용이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노동청이 심사
 -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이나 수정절차를 훈령 등에서 일일이 찾아 내기가 어려워 취업규칙의 변경 명령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취업규칙 제출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한 취업규칙은 노동청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
- (주요 내용)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경우 취업규칙의 심사 생략

■ 이수진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1)

- (발의 이유)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이나 증가하였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고, 노동관계법령 고도화로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 병행에 한계
-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근로감독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일부 위임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이수진 의원(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11.11)

- (발의 이유)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을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가 증명
 - 또한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및 갱신·변경·해지 절차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하면 노무의 배정 및 보수, 고객만족도 등 평가 방법과 기준 및 결과 활용 같은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 사회보험료 및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지원

■ 윤준병 의원(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2)

- (발의 이유) 외국인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이 없어 체류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만 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
 - 한편, 현행법에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최저연령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
- (주요 내용)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최저연령을 설정하되 최저연령 미만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허용

■ 이종배 의원(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2)

- (발의 이유) 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
- (주요 내용)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